

대학평의위원회

1. 회의제목 : 대학평의위원회(22.12.14)

2. 회의일시 : 2022-12-14 수 10:30 ~ 12:30

3.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 및 ZOOM

4. 참석인원

구 분	인 원	성 명
참석인원	11명	이시화,최종란,최승희,구자경,임상순,이진,박재현,조종건,김수우,최진민,최강재
불참인원	0명	

5. 회의안건

- 가. 학칙 개정(안) 심의 의결
- 나. 교내 풋살장 설치 재심의
- 다. 대학 현안 관련 사항 논의
- 라. 2022학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6. 내용첨부 :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_2022.12.14_최종.pdf 별첨

7. 의 건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22.12.14

의	장	이	시	화	2022/12/16 확인
위	원	최	종	란	2022/12/16 확인
위	원	최	승	희	2022/12/19 확인
위	원	구	자	경	2022/12/15 확인
위	원	임	상	순	2022/12/15 확인
위	원	이		진	2022/12/19 확인
위	원	박	재	현	2022/12/19 확인
위	원	조	종	건	2022/12/19 확인
위	원	김	수	우	2022/12/20 확인
위	원	최	진	민	2022/12/15 확인
위	원	최	강	재	2022/12/19 확인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2. 12. 7.(수)
위원정수 : 13명	재적위원 : 11명

1. 회의일시 : 2022. 12. 14.(수) 10:30

2.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309호) 및 ZOOM 온라인 병행

3. 참석여부

구분	성명	비고
참석인원 (11명)	이시화, 구자경, 이진, 임상순, 최승희, 최종란, 최진민 최강재(조), 김수우(외), 조종건(외), 박재현(학)	간사 : 손명현 서기 : 임수현
불참인원 (0명)		-

※ 풋살장 관련 안건 논의시 김봉한 행정지원처장(이하 "김봉한처장") 배석

4. 안건

가. 학칙 개정(안) 심의·의결

나. 교내 풋살장 설치 재심의

다. 대학 현안 관련 사항 논의

라. 2022학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5. 회의내용

가. 개회

손명현 기획예산팀장(이하 "간사")이 대학평의위원회 재적인원 11명이 전원 참석하였음을 보고하고 이시화 의장(이하 "의장")이 회의 개최 성원이 되었음을 공표하고 회의를 개회하다.

1) 학칙 개정(안) 심의·의결

(간사가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 최종란의원 : 당해학년도 전체 입학생수의 100분의 20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약학과도 입학 시기가 동일한 것 아닌가? 그럼 당해 학년도 입학생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 100분의 20이 몇 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전년도에 되어야하는 것 아닌가?
- 간사 : 이번 학칙 개정은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령을 확인하고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 이는 추후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추가 의견이 없다면 이 안건에 대해 동의·재청해 주기 바란다.

(김수우의원의 동의와 조종건의원의 재청으로 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 회의종료 이후 간사가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수와 학생정원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기존 회의자료의 개정 문구중 관련 법안의 문구와 다른 사항을 해당 법안 문안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을 함께 설명하다.

2) 교내 풋살장 설치 재심의

(김봉한 처장이 배석하여 교내 풋살장 설치에 대해 설명하다.)

- 김수우의원 : 실내체육관에 대한 계획은 없나? 풋살장도 좋지만 평택시,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등 방법을 찾아 실내체육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동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사항이다.
- 의장 : 기타안건으로 기록하여 이사회에 전달하겠다.
- 김수우의원 : 전문적인 업체가 진행하는 것인가?
- 김봉한처장 : 그렇다. 방송출연도 하는 아주 전문적인 업체이다.
- 최승희의원 : 처음 논의했을 당시에 나왔던 문제가 장소에 대한 것, 학생에 대한 수혜부분, 계약기간이었다.
- 김봉한처장 : 업체에서 선투자를 하고 이후부터 감가상각이 된다. 10년의 계약기간 후 학교에 기부하는 것으로 업체와 논의되었다. 장소의 경우 제2피어선빌딩 옆 주차장에 설치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지에 대한 별도의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풋살장을 이동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전할 수 있다. 얼마전에도 비대위원장을 만났는데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50%가 할인된다.
- 최강재의원 :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학생들에게 이용료를 굳이 받으면서 해야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풋살장을 설치할 순 없는 것인가? 현재 기존 풋살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어려운지 궁금하다.
- 최종란의원 : 전체 공간에 대한 활용 계획을 가지고 풋살파크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 공간 말고 고려한 다른 공간은 없나?
- 김수우의원 : 평택시, 경기도 지원은 불가능한가? 시에서 풋살장을 만들어주고,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개방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바엔 시나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시민들에게 무료개방하는 방안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조종건의의원 : 처음 논의했던 때보다 이미 몇 개월이 지난 상황이다. 지금 공간을 확정해버리면 변경하기 어려우니 전체 공간에 대한 활용 계획을 세운 후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가?
- 김봉한처장 :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다. 먼저 기존 풋살장의 경우 예산만 투자하면 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시 지원의 경우 풋살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지만 테니스장은 추진한 적이 있다. 90주년기념관 옆쪽인데 3개면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한쪽에 급경사면이 있어 이를 매우지 않는 이상은 2개 면밖에 설치를 못하여 진행이 멈춰있는 상황이다. 업체를 통해 풋살장을 설치하는 것도 학교 교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전액 업체 부담이다. 전체 공간에 대한 활용 계획은 공간조정위원회에서 수립하는데 대학평의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오기 전에 이미 공간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였다. 유효부지 활용을 위해선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야하는데 대학평의원회가 그 경로이다. 의견을 주시면 이사장의 검토와 승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 김수우의원 :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도 냈는데 풋살장 이용하기 위해서도 돈을 내라고 하

면 반발이 예상된다. 최대한 시를 활용하여 재정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김봉한처장 : 이미 타대학에 설치한 사례는 매우 많다. 또한, 우리 대학도 이미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한 사안으로 설치 반대의견은 없었다. 장소에 대한 대안으로 제2피어선 빌딩 옆 주차장 유효부지, 학생관 뒤쪽 공터, 테니스장을 짓기로 하였던 장소 이렇게 3가지가 될 것 같다. 운영방식은 월 600만원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10년 계약 종료 후 기부하고 나가는 것이고, 기부채납시에도 사용가능하도록 개보수를 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신설할 때 기존 풋살장도 보수해주는 것으로 업체와 얘기된 상황이다.

- 의장 :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전 비용도 전액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인가?

- 김봉한처장 : 그렇다. 계약서에 명시하겠다.

- 의장 : 설립방식, 장소, 운영방식 세가지로 정리하여 전제조건을 명시 후 이사장님께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행정지원처장은 이만 퇴장해도 좋다.

(김봉한처장이 퇴장하다.)

- 최진민의원 : 평택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받고 진행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와 진행할지에 대해선 시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해보고 다시 논의해야할 것 같다. 학교 입장에서는 10년간 7억 2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다. 장소의 경우 다른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정말 제2피어선빌딩 옆 주차장밖에 설치할 곳이 없다면 일단 먼저 설치하고 추후 이전하는 것으로 해야할 것 같고, 이 경우 이전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한다.

- 최종란의원 : 우리 학교 공간 전체 부지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할 것 같다. 김수우의원이 처음이 말씀하셨던 실내체육관 도입도 굉장히 좋은 안이므로 의견으로 같이 올리자.

- 의장 : 정리하겠다.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은 대학의 장기 부지 활용 계획을 고려한 장소 선정, 설립방식(시 지원을 우선 고려 후 불가할 경우 외부업체 고려), 운영방식(학생 무료개방 등)으로 정리하여 이사장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번 안건은 정리하는것이 어떨까 한다.

(대학의 장기 공간 활용 계획을 고려한 장소 선정, 설립방식(시 지원을 우선 고려 후 불가할 경우 외부업체 고려), 운영방식(학생 무료개방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다른 대안이 없을 시 최종 방안으로 업체와 추진하는 것으로 이사장께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다.)

3) 대학 현안 관련 사항 논의

- 의장 : 임상순의원과 최진민의원이 대학 현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하나씩 주셨다. 먼저 최진민의원의 의견부터 논의하도록 하겠다.

- 최진민의원 : 지난주 이사장님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구두상으로만 의견이 교환되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문서로 이사회에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의장 : 최진민의원이 사전에 말씀해주신 사안은 총장 선출 제도를 통한 조속한 신임 총장 선출 등이었고, 그 외에 추가로 전달할 내용을 오늘 회의에서 정리하여 정식 공문으로 법인에 전달하는 것을 제안한다.

(전체 의원이 동의하다.)

- 의장 : 최진민 의원이 제시한 사안 외에 어떠한 사안을 더 전달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김수우의원 : 현재 구성원들의 큰 관심은 총장직선제에 관한 문제인 것 같다. 이사장님과 면담할 때도 얘기하였지만 사실 총장직선제보다는 공모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총장으로 선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화합으로 단결하여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와야한다. 직선제를 할 경우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 의장 : 사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많은 과정들이 학교 내부에서 진행되었다.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 총장직선제로 정리된 바 있다. 이사장께 총장직선제에 대한 백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최강재의원 : 학교내 보수되어야 하는 건물들이 많다. 공간사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고 조교들의 기본적인 사무공간이나, 학생들의 과방 및 휴게공간 등도 보완했으면 좋겠다.
- 의장 : 학교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장·단기 계획을 요청하면 될 것 같다. 최진민 의원이 최종적으로 전달할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공유해주면 그때 다시 논의하여 이사장님께 전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 다음은 임상순 의원의 의견에 대한 것이다.
- 임상순의원 : 지난 교무위원회에서 교무위원 직무평가 규정 개정(안)이 논의되었다가 보류된 바 있다. 규정에 따르면 대학평의위원회에서 교무위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교무위원회에 대한 평가기간은 12월말까지이다. 그렇다면 1~2월에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위해 평의위원회에서는 '교무위원 직무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오늘 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 의장 : 이 사안은 사학혁신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대학평의위원회에서 교무위원 직무평가 위원회를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다.
- 최종란의원 : 평가기준도 정해져있나?
- 의장 : 해당 보고서에 평가기준도 정리되어 있어 공유하도록 하겠다. 해당 기준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재 평의원 구성 인원은 11명이다.
- 임상순의원 : 학생대표, 조교대표, 직원대표, 외부위원대표, 교수대표가 모두 골고루 포함되어야한다. 그러므로 학생, 조교, 외부, 직원은 모두 각 1인으로 하고, 교수를 2~3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 최승희의원 : 교무위원을 사실상 학교 내부에서 활동하므로 외부위원이 평가위원회에서 활동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 조종건의원 : 합리적인 말씀이시긴 하나 안에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밖에서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외부인원이 위원회의 다수가 되진 않기 때문에 1인 정도는 포함해도 될 것 같다.
- 의장 : 조종건 의원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외부인원으로 1인 구성하고, 학생이나 조교에서 1인, 나머지 인원에는 대해선 교수와 직원이 안분하는 것은 어떠한가?
- 최강재의원 : 구성원마다 인원 배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학생, 조교는 엄연히 다른 구성원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둘다 1인씩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 의장 : 좋다. 학생, 조교, 외부대표 각 1인씩 포함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수와 직원이 안분하여 구성하는 것은 어떠한가?
- 조종건의원 : 동의한다.
- 임상순의원 : 앞으로 회의가 많이 진행 될 것이고, 각 파트를 맡아 진행하기엔 9명은 너무 많은 숫자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직원 평의원으로 계신 분이 한 명이기 때문에 학생, 조교,

외부, 직원대표로 각 1인씩 구성하고, 교수대표를 2~3인으로 구성하면 총 6~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 의장 : 임상순의원의 의견에서 교수대표 3인으로 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제안한다.

(전체 의원이 동의하다.)

- 의장 : 교수 대표 3인과 외부의원 대표 1인을 결정해주기 바란다. 이 내용에 대해 임상순 교수님이 제일 잘 아시므로 교수 대표 중 한명으로 선정하는 것에 제안한다.
- 최종란의원 : 저도 참여하겠다.
- 임상순의원 : 나머지 1인으로 이진 의원을 추천한다.
- 김수우의원 : 외부의원 대표는 조종건 의원께서 맡아주시기로 했다.
- 의장 : 모든 위원들이 결정된 것 같다. 교무위원 직무평가 위원회는 임상순, 이진, 최종란, 최진민, 최강재, 박재현, 조종건 총 7인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동의·재청 바란다.

(구자경 의원의 동의와 김수우 의원의 재청으로 임상순, 이진, 최종란, 최진민, 최강재, 박재현, 조종건 총 7인으로 교무위원 직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다.)

4) 2022학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간사가 2022학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을 설명하다.)

- 의장 : 이번 추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은 재정기탁금이다.
- 최종란의원 : 재정기탁금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하게 들어온 만큼 뭔가 특별하게 구성원들에게 지원해주는 항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동안의 재정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와이파이 설치와 같은 예산 항목도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 김수우의원 : 교내 건물에 와이파이 설치하는데 7억원정도 든다고 알고 있다.
- 간사 : 7억을 들여도 교내 모든 건물에서 원활한 와이파이 구현을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전산지원팀에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상주하는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의장 : 재정기탁금에 대한 운영을 아주 세밀하게 잘 해야한다. 매년 학생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자립위원회(가칭)을 만들어서 자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김수우의원 : 필요없는 부지나 건물을 매각을 해서라도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한다. 동문회에서 동문 출신 기업인들을 만나서 취업도 추천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기금을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에서도 동문회를 좀 도와줘야한다. 다른 대학들 보면 졸업생이든 신입생이든 동문회비를 2만원씩이라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대학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이사들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 의장 : 자구 노력안을 만들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것에만 매진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 간사 : 재정자립과 관련하여 재정대책위원회라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다. 대학본부에서 구성한 것이다. 재정 자립화 방안에 대해서 이미 2020년도에 만들었던 안이 있었고, 현재 기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안이 완성되면 대학평의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 의장 : 좋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성 위원들이 대부분 교무위원일텐데 업무가 많고, 각자 맡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할 TF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 힘들 것 같다.
- 최종란의원 : 재정대책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경과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의장 : 경과를 얘기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평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안을 꾸리기는 어렵다. 이를 전담하는 팀이 있어야한다. 이사장께 전달하는 내용에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하자.

(이상으로 2022학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치다.)

6. 폐회

대학평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폐회하자는 이시화 의장의 건의와 전체 위원의 동의·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12시 30분에 폐회하다.

2022년 12월 14일

